원기111년 혁신세미나

AI 시대,
원불교 교화 대전환 기획안

AI 시대, 원불교가 준비해야 할 것들

원기111(2026). 10. 8. · 발표 윤관명 교무 (영광교구사무국)

CONTENTS · 1/2

목차

Ⅰ 제안 배경

1. 제안의 목적
2. AX란 무엇인가
3. AI는 원불교의 해석을 어떻게 놓치는가
4. 세 주체의 요구

Ⅱ 현황 진단

1. 교단 조직의 구조적 과제
2. 되풀이되는 반복 구조
3. 이웃 종교의 움직임

Ⅲ 제안의 방향과 과제

1. 해법의 방향
2. AI 시대 종교 조직의 10가지 준비 과제
3. 영역별 실행 방안
4. 예산 없이 바로 착수할 과제

CONTENTS · 2/2

목차

IV 추진 경로

1. 두 개의 경로
2. 원불교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이유
3. 결단 경로의 핵심 투자
4.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구조
5. 기관 연계와 자율 실행

V 실천 과제

1. 교단의 결단과 추진 일정
2. AX 위원회와 실행TF팀 구성
3. 출가교역자 AI 역량 강화
4. 원불교 교서 정본화
5. 교화콘텐츠 아카이브

AX는 AI와 함께 일하고 교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AX에 대한 오해

- 새 도구를 구매하는 일
- 사람을 대체하는 일
- 새 업무를 늘리는 일

AX의 본뜻

- 업무를 덜어 교화에 집중하게 하는 일
- 교법을 정확하게 전하는 일
- 기록과 논의가 이어지게 하는 일

AX의 성패는 도입한 도구가 아니라, 덜어 낸 업무와 축적된 기록으로 가늠합니다.

AI는 원불교의 해석을 놓칩니다

용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적 의미	원불교의 해석
삼학	계 · 정 · 혜	정신수양 · 사리연구 · 작업취사
불공	불보살께 올리는 공양	처처불상 사사불공
선	주로 좌선 수행	무시선 무처선

틀린 설명이 아니라 원불교의 해석을 놓친 설명이기에, 오히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 주체의 요구는 한곳에서 만납니다

교도

- 원전에 근거한 정확한 교법 정보
- 고령·원거리 교도의 접근성
- 청년·3040 세대의 접점

교화현장 교무

- 홀로 감당하는 준비·행정의 경감
- 교당 간 소통과 공통 매뉴얼
- 법회·상담·교육에 집중할 시간

중앙총부

- 부서 간 데이터 공유
- 인사이동에도 이어지는 업무
- 정책을 뒷받침할 데이터

세 주체의 요구는 한곳에서 만납니다

공통 요구

시간

교화에 집중할 시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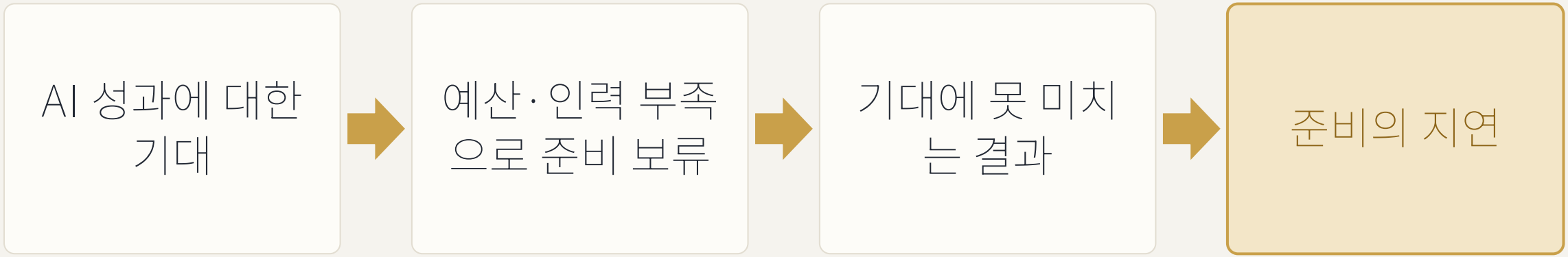
믿을 수 있는 정보

기록

끊기지 않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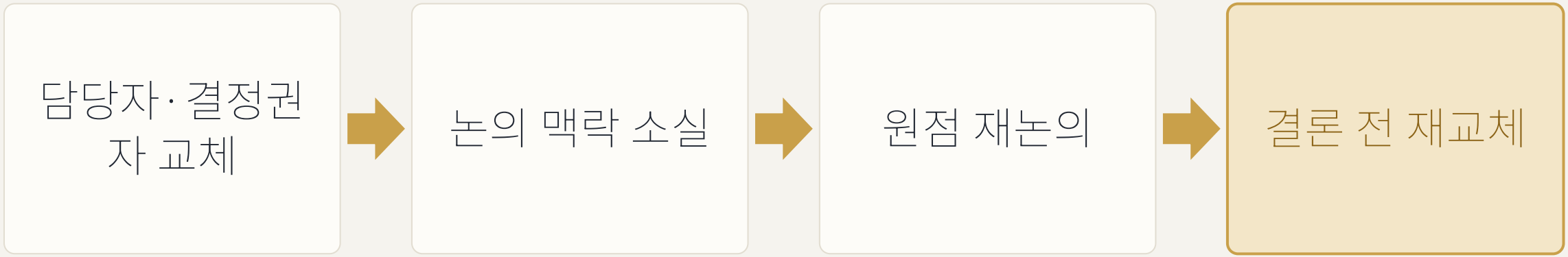
되풀이되는 두 개의 고리

고리 ① 준비 없는 기대



되풀이되는 두 개의 고리

고리 ② 논의의 초기화



가장 큰 낭비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매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웃 종교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신교

17% → 58%

설교에 AI를 쓰는 목회자 비율 (2023 → 2025)

성도 다수는 AI 설교문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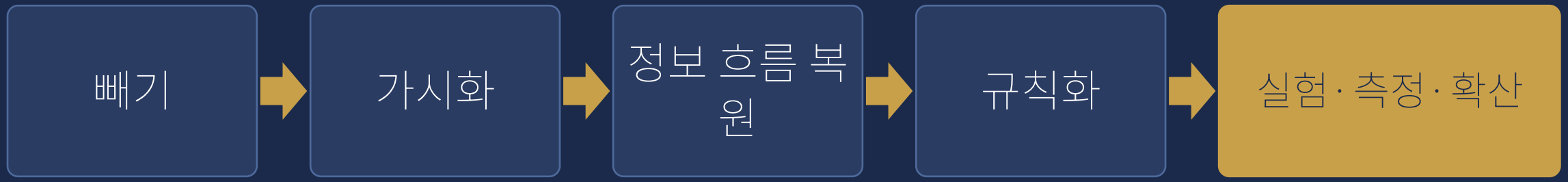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이웃 종교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공식 문서만 근거로 출처를 밝혀 답하는 교리 AI
불교	법문·상담 챗봇, 기록유산을 정본화한 통합 아카이브
미국 개신교단	AI가 만든 새 고통을 돌보는 목회 지침

공통 교훈: 검증된 자료와 출처가 신뢰를 만듭니다.

AI를 도입하기 전에 업무를 덜어 내고, 정보가 흐르게 합니다



준비가 갖추어지면 AI는 선순환을 앞당기지만, 준비 없이 도입하면 악순환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도구의 도입은 마지막 단계에 둡니다.

AI 시대 종교 조직의 10가지 준비 과제

근거

무엇을 전할까

과제 1~4

전달

어떻게 닿게 할까

과제 5~7

경청

무엇을 듣고 있나

과제 8~9

사람의 자리

누가 무엇을 하나

과제 10

순환 구조

듣기 → 해석과 답변 → 공개 → 점검 → 다시 듣기

AI 시대 종교 조직의 10가지 준비 과제

근거 무엇을 전할까

1 정본 확정

2 원전·해설 구분

3 교리 해석 체계

4 용어 해석 대조

전달 어떻게 닿게 할까

5 AI가 읽을 수 있는 구조화

6 이용 조건 결정

7 공식 답변 마련

AI 시대 종교 조직의 10가지 준비 과제

경청 무엇을 듣고 있나

8 질문 수집 창구

9 정확성 점검

사람의 자리 누가 무엇을 하나

10 AI와 사람의 역할 합의

예산 없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

1

세 주체 실태조사

AI 사용 실태와 우려, 반복 업무 시간의 기준선

2

기준 문서화

안전 사용 기준, 업무 경계선, 인력 감축 비적용 원칙

3

정본 정비 기준

대상 원전, 판본 확정 원칙, 출전 표기 방식

예산 없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

4

용어 해석 대조 착수

불교에서 온 핵심 용어부터

5

혼동 질문 점검

일반 AI의 현재 답변 점검

6

결정 기록부 개시

논의 · 결정 · 보류의 이유를 축적

예산이 없다는 것이 착수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경로: 방향은 같고 속도가 다릅니다

기본 경로 현행 여건 내 추진

-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 준비단과 자발적 참여(겸임)
- 핵심 용어와 기준부터 정비
- 기반 마련까지 수년

결단 경로 교단의 과감한 결정

- 교단 결의에 따른 일괄 착수
-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 정본·용어 정비 집중 사업
- 핵심 기반을 1~2년 안에

순서는 지키되 속도를 높입니다. 투자는 도구 구매보다 준비를 앞당기는 데 먼저 씁니다.

왜 지금인가: 인력은 줄고, 조직은 새로 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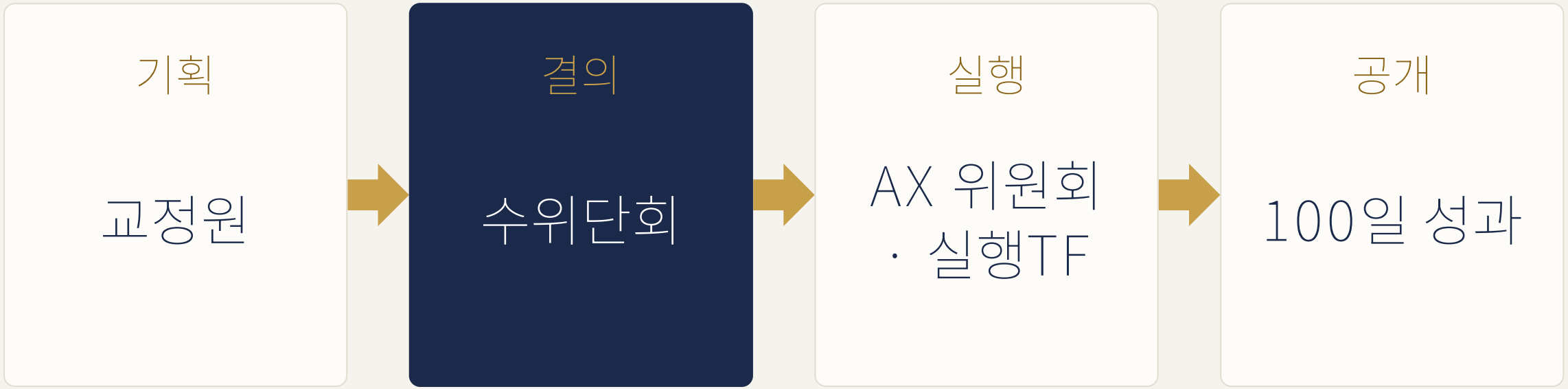
32 → 15명	전무출신 지원자 원기100년 → 원기111년
원기120년대 초	데드크로스 전망 누적 퇴임자가 집무자를 넘어섬
원기112년	교정원 조직개편 새 체제에 AX를 처음부터

출처: 원기111년 인력수급계획 제2차 세미나 발표 자료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AX는 줄어든 인력으로도
교화의 기능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정원이 기획하고, 수위단회가 결의합니다



교정원이 기획하고, 수위단회가 결의합니다

결의에 담을 것

기한

단계별 목표와 첫 성과의 시한

책임 주체

AX 위원회와 실행TF

보고 의무

수위단회 정기 보고, 공개 보고

예산

중앙교의회 의결 경로

AX 위원회와 실행TF

AX 위원회

의사결정의 권위

- 수위단회 의결로 설치
- 위원장: 교정원장(겸직)
- 정기 월 1회, 필요시 임시
- 원칙 제정, 시범 승인, 확산 결정

AX 위원회와 실행TF

실행TF

현장의 실행력

- 교정원 기획실 직속
- 실행팀장과 분야별 담당교무 3~4인
- 6~12주 단위 시범 과제, 매월 보고
- 핵심 1~2인 전담, 나머지는 겸임 · 재가 전문인력 · 협력 기관과 결합

정보 기능(현 정보전산실)은 인프라 · 보안 · 원티스 운영을 맡아 협력합니다.

우선 추진할 세 과제

1. 출가교역자 AI 역량 강화
2. 원불교 교서 정본화
3. 교화콘텐츠 아카이브

즉시 착수

출가교역자 AI 역량 강화

- 교정원 → 교구 앵커 → 전 교당
- 기초 · 심화 · 전문가 3트랙
- AI 문해력 공통 필수
- 업무 경계선 기준표

우선 추진할 세 과제

1. 출가교역자 AI 역량 강화

2. 원불교 교서 정본화

3. 교화콘텐츠 아카이브

정본 우선

원불교 교서 정본화

- 기준 판본은 교단의 결정
- 기본경전 정본 데이터
- 의미 기반 원전 검색
- 검색–해석 경계 규정

우선 추진할 세 과제

1. 출가교역자 AI 역량 강화

2. 원불교 교서 정본화

3. 교화콘텐츠 아카이브

단계적 개설

교화콘텐츠 아카이브

- 내부용 → 교도용 → 대중용
- 통합 콘텐츠 아카이브
- 교법 정합성 검수
- AI 관여 표시

출범 후 100일의 약속

출범 후 100일 안에 공개할 다섯 가지

1. 안전 사용 기준(승인 업무용 계정)과 업무 경계선 공지
2. 표준 양식과 인수인계 서식 시행
3. 반복 업무 측정과 첫 업무 빼기 사례 공개
4. 용어 해석 대조 자료 1차 공개
5. 시범 교구·부서 지정, 결정 기록부 공개

앞으로의 일정

원기111. 10. 8.	10~11월	연말	원기112년
혁신세미나	수위단회 보고	중앙교의회 공감	교정원 기획 · 수위단회 결의
▲ 오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교단의 결정이 명확하면 실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 변화에 앞서 응답해 온 혁신의 전통을 이어,
원불교가 AI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종교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발표 윤관명 교무 (영광교구사무국) · 자세한 내용: 「AI 시대, 원불교 교화 대전환 기획안」